김구 민족통일 운동의 선구자

강연초록 김구의 삶과 죽음, 그 역사적 평가

역사문제연구소(소장 이이화)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역사법정-한국현대사 주역들을 재평가한다'는 주제로 제23회 한국사교실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13일에 열린 도진순(창원대 사학과)교수의 '김구 그는 민족통일운동가인가, 남북분단에 책임이 있는가'란 주제의 강연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註〉

지난 92년 대선때 김영삼, 김대중, 박찬종 세명의 후보가 모두 백범 김구를 존경한다고 말한 것에서만 보더라도 김구가 얼마나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 관한 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김구의 성장기 및 초기 국내 독립운동의 경험에서 간취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그는 그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안정적인 제도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유학, 동학, 불교, 기독교 등을 두루 편력한 바와 같이 사상적 방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김구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기 정체감이 비교적 결여되어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조적 집착이 없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이론적 전망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구는 당시 정치지도자들에게 흔치 않는 서민적 소박성을 지니고 있었고, 근대적 가치관과 서구적 생활을 경험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전통적 가치인 유학적 또는 의병적 신의를 중시하는 완고함을 지닌 행동지향형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김구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은 1919년 그 이후 시작되며, 중국망명 이후 김구의 독립운동은 '임시정부의 고수와 국민적 대의성의 확인'으로 요약된다.

해방후 임정법통론 체제대립에 유실 통일정부 수립을 정치활동 중심삼아

김구는 1923년 국민대표대회에서 임정이 무력화되었을 때 내무부장으로 국민대표회의를 해체하였고 1926년 인물난으로 내각조직이 어려워 임정이 정체상태에 빠졌을 때 국무령을 맡아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1920년대 말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임정이 명목만 남았을때에도 끝까지 지 임정을 지켰다. 또한 김구는 임정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의미있는 활동을 하였다. 이봉창 의사의 일본 국왕 암살 기도 사건,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등 한인애국단을 통한 특별 활동,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등 임정산하 정당의 조직강화, 광복군 등 군사조직의 결성과 활동 등이 대표적이네, 김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임정의 국민적 대의성을 추구하였으며, 전쟁 발발후 임정의 외교적 인정을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 국민당정부와의 교섭, 태평양전쟁 이후 중국 및 미국 정부와의 교섭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민족영수회의를 통한 좌도정부 수립 ③과도정부 주도의 전국적 보통선거에 의한 정식정부 수립의 세단계로 되어 있다.

임정법통론은 좌·우의 체제대립적 측면에서 남한단정론과 근친성을 지니는 한편, 미국·김일성과 등과 민족문제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김구·임정계는 해방직후 좌익과 북한에 대한 체제대립적 측면에 경사되어 해방직후 민족치문제의 현안인, 친일파를 비롯한 인적·물적 식민잔재의 청산에 주력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민족적 과제는 체제적 대립에 용해, 유실되었다. 김구는 임정법통론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분단이 지년 민족문제에 주목하였고, 좌우와 남북에 대한 보다 확대된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같은 우익진영인 김구의 임정계와 이승만의 한국 민주당은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적대계 관계로 전환되었다.

역설적이지만 혼히 극우로 분류되었던 김구가 1948년 남북회담의 적극적인 추진자가 되었다. 김구의 극우가 이데올로기적 정체감에 의해 공고한 것이라기 보다 감성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 김구가 행동지향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김구의 임정법통론이 미국의 낡한 단독정부 수립 방침과 배치되어 좌절되었던 것에 있을 것이다. 결국 분단이 내재한 민족문제와 이에 대한 김구의 자주적 입장은 완고해 보이던 좌익·북한에 대한 그의 입장을 합작으로 선회시키는 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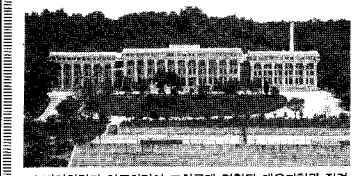
김구의 임정법통론은 체제적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였고, 이로써 민족문제가 일시 유보되었으며, 그 민족적 과제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의 국가건설론은 좌절되었다. 이를 통해 김구는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의 관건적 의미를 다시 발견하였으며, 그 과제로 '통일·독립'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통일정부 수립은 김구의 오랜 독립, 정치활동의 총괄적 귀결이며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바탕이 되었다.

김구가 감정만 앞세워 강력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고 1947년 "정 안되면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워도 좋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때문에 분단의 책임 여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은 미국과 미군정이 주동하고 친일파들이 적극 도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를 분단의 주역 또는 추진자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술부〉

우리학교 연구소

② 조경계획연구소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롭게 결합된 체육과학관 전경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환경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이로 인해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조화롭게 결합한 휴식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경연구 과제를 의뢰받아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승범(대학원박사9기 조경학)씨는 "우리 연구소는 외부 의뢰연구를 훌륭히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해 이론공부에만 치우쳐기 쉬운 대학원과정에 많은 실제적 프로젝트 경험을 살려 학문의 실제 응용과 사회적 경험을 쌓고 있다."며 "국내에 조경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중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자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학문의 이론·실기 접목해 연구소 운영 서울시 의뢰연구 수행해 호평받기도

분야의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학교에서는 조경계획연구소(소장 안봉원 조경과 교수)가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81년 설립된 조경계획연구소는 주로 관공서의 '조경논총'의 발간과 함께 여러가지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81년 국회의사당 조경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83년 창경궁 정비(조경)사업 설계, 87년 천안삼거리공원 조성 기본계획, 91년 공군본부 미전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92년 수원시 효원공원 연출기본계획 설계 등이다.

특히, 지난 93년에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원뜸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도시공원 안내체계 개선계획'연구를 담당해 도시공원으로서의 이미지 및 독자성 부여,환경구조물로서의 심미성 및 명료성 확보 등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그 이름을 떨쳤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간에게 목적행위나 목적지를 유도,인지시켜 주는 기능의 환경요소를 안내체계라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의 의식조사와 국내·외공원 안내체계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디자인, 배치, 정보전달, 유지관리상의 공원안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배종근 記者〉

과학입국 위한 필독서③

이용수 지음

'우리들을 위한 원자력 이야기'

미세한 원자 세계로의 자유로운 출입 시도 대안으로서 원자력에너지 쉽게 풀이

현대문명은 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통해서 발달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에너지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처럼 항상 공급되어야 한다. 근래와 와서야 공기와 물의 오염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전에는 어떤 사건을 예측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의 경우는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공기와 물의 오염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환경오염의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에너지 부족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었지만 그 파동의 기억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아마 다음번에 다가올 석유파동은 이전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깊고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상황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논조를 바꾸는 언론인이 적지 않은 요즈음 즐기차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걱정해온 언론인이 원자력에 관한 책을 냈다. 그는 생물학과 보건학을 전공하고 신문사의 과학부장으로 있으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문제의 한 해결책으로서 원자력을 제시하고 있다. 1차 에너지의 90퍼센트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곡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린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는 김히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무조건적인 일방통행의 원자력 찬성론자가 아니며 원자력이 완벽한 에너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을 전공한 공학도들에게 난감한 문제의 하나는 원자력이라 하면 핵폭탄부터 떠올리는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쉽게 원자력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까 이다. 공학이나 과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전공분야를 비전문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에너지가 인류 문명할 안전설계의 목표를 제시하고도 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 관련기사일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북한의 원자력 시설과 능력 및 의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북한의 핵의혹관련 기사를 막연한 불안감 없이 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소문처럼 떠돌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 핵개발시도와 좌절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서 국제정치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파악하는 흥미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을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고자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국민의 이해 부분에서는 원자력 사업자의 잘못과 국민들의 불신해소 방안을 공정하게 지적함으로써 원자력을 둘러싼 혼돈속에서 헤어날 길을 밝히고 있다.

황 주 호
〈공대교수·원자력공학〉

서서 본

'보여주기와 느낌주기'

'남아프리카에도 민주화의 꽃이 피는가.'

세계인의 뇌리에 백인 우월주의의 표상으로 깊게 각인되어 있던 남아프리카에도 바야흐로 전국민 직선투표를 통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반대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흑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 역사적인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마침내 민주주의 국가로서 걸음마를 시작했다.

45년의 백인통치를 종식시키고 의미깊은 흑인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뼈를 깎는 고통의 댓가를 치루었다. 자유를 부르짖는 꺼지지 않는 투쟁이 있었고 89년 당시 인종차별의 철권정치로 악명높던 피터 보타 대통령에 반대한 데 클레르크 대통령 후보의 승리가 또한 있었다. 이러한 댓가로 백인인 클레르크 전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은 93년에 나란히 노벨평화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영광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부정의 과정이 힘들고 또한 길었기에 앞으로 남아공의 민주주의 건설의 행보에 모든이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인종차별과 군부독재라는 명제 앞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우리 나라의 비슷하게 느끼는 이유는 비슷한 기간의 역압을 딛고 남아공은 흑인대통령을, 한국은 문민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공통된 승리감일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는 군부 독재의

시대적인 불행을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맹렬히 제기되었던 민주화 요청의 끊임없는 대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중의 폭넓은 지지기반과 정통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자격을 상실했던 과거 정부들은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에 무력대응 이외의 '정당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한 과거를 딛고 김영삼 정부는 문민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대중속으로 다가왔다. 87년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를 부르짖었던 대중속에서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고 국민의 열망과 국가적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 그 문민에 대한 기대를 성실히 만족시키고 있는가.

지난 5월 11일 저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김영삼 대통령과 대학생들의 대담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는 그날 오후 청와대 앞마당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실력자로 인정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과 그간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대학생의 직접적인 대면이었다는 점에서 세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자리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E대학의 모과 3, 4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대통령의 답변들조차 지극히 평범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왜 선별되어지지 않은 많은 학생들과 좀더 진솔한 대화는 하지 못했던가. 너무나 상투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왜 우리의 '문민대통령'은 모르는가.

〈박경화 記者〉

新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눈은 높게, Height ! 마음은 깨끗하게, White !"

신록은 젖비린내 나는 새순이 아니다.
그렇다고 떨어질 날을 기다리는 낙엽도 아니다.
촉촉한 대지에 깊게 뿌리를 박고,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신록—

5월엔,
밝은 얼굴, 싱싱한 어깨의 여러분이 바로 신록이다.

자— 잔을 높이 들어, Height !
마음을 깨끗하게, White !

젊음에의 건배. HITE가 함께 합니다.

지하 150m의 100% 암반천연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

© 1994 King Features Syndicate, Inc.